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11-A월호)



한국에서 빛난 CST 동문과의 만남과 협력의 새 장 국제 협력의 미래를 밝히다



(2024년 10월 21일 CST 총동문회가 인천 계산중앙교회(최신성 목사)에서 열리다)

한국, CST 동문과 교회, 학교, 교계 협력의 새 지평을 열다

CST(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국제 협력처 이경식 부총장과 김남중 부학장은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동문, 교계, 교단, 교회, 그리고 주요 신학대학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여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양국 신학계와 목회 현장의 발전과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자, CST와 한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문과의 뜻깊은 만남, 협력의 새 미래를 열다

10월 21일, 인천 계산중앙교회(담임목사 최신성)에서 열린 한국 총동문회에는 CST의 졸업생 30명과 재학생 30명, 총 60명 이상의 동문들이 모여 옛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함께 그렸다. 참석자들은 고향 같은 모교를 회상하며, 미래의 비전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차기 동문회장으로 최신성 목사가 선출되고, 박동식 목사(총무), 전성국 목사(회계), 이상수 목사(서기) 등 새로운 임원진이 임명되면서 총동문회는 신입 임원진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더욱 자세한 총동문회 소식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0178>

이외에도 이 부총장과 김 부학장은 권오서 감독, 전용재 감독, 김낙인 목사, 이상혁 목사, 공성훈 목사, 김완중 목사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동문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 부총장과 김 부학장은 정동제일교회(천영태 목사), 대전 천성교회(한동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육성수 목사), 서울여대 대학교회(김범식 목사)를 직접 방문하여 교인들과 교류하며, 특히 정동제일교회, 보라매열린교회와 서울여대 대학교회에서는 이 부총장이 설교를 통해 동문들과 교류의 장을 넓혔다. CST 출신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한국 내 교회 수는 전국에 걸쳐 수백 교회에 달하며, 각 교단에서 탁월한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계와의 협력으로 더 넓은 사역의 길을 모색하다

이 부총장과 김 부학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의 김두범 총무를 만나, 교육국과 CST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미국 유학과 사역 설명회를 통해 유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이훈삼 총무와 만나 한국과 북미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고, 은희곤 감독 그리고 기감 정동제일교회와 종교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한국 주요 신학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CST는 한국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해 각 대학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장은 각 대학의 총장, 대학원장, 학과장, 학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양국 신학 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입학설명회와 유학·사역 설명회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들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CST는 한국에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CST 졸업생 중 60명 이상이 한국 내 30개 이상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학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유상담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문상담박사 과정 회의를 마친 후, 10월 22일)

(목원대 신학교수들과 함께, 10월 23일)



(감신 유경동 총장과 함께, 10월 29일)

(장신대 총장과 신형섭 해외협력처장과 함께, 10월 31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 협력을 위한 헌신에 감사패 수여

CST는 이번 방문 중 장학금과 후원금으로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쓴 정동제일교회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CST 국제협력에 헌신한 이종오 중경 부총장, 그리고 동문회 발전과 장학금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송기성 목사, 김두범 기감 교육국 총무, 박주환 목사, 최신성 목사, 김두영 목사, 박동식 목사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은 CST와 한국 신학계의 다리 역할을 해 온 귀한 인물들로, 앞으로의 동행과 협력을 향한 약속을 다졌다.



(이경식 부총장, 정동제일교회에서 설교, 장학위원장께 감사패와
1880-1920에 사용되었던 선교역사 자료 19장의 유리 필름을 선물하다)

이번 한국 방문은 CST가 한국과 북미 신학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CST와 한국 CST 동문과 교회, 학교, 교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CST와 동문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 새로 선출된 감독 김성복 감독과 우광성 감독의 인사 말씀



김성복 감독

1995년, 저는 KMC와 UMC의 internship program에 선발되어 CST에서 연수 하던 중에 김찬희 박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D.min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박사님 연구실에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턴을 하면서 학위를 한 특별한 경우였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호스트 교회가 이은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언약교회였고, 이후 목사님 소개로 김웅민 목사님의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은 같은 학교의 동문이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인데, 항상 우리들 관계에 CST는 병풍처럼 쳐져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어려운 때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직을 시작하며 적지않은 부담이 있지만, 동문들이 응원하고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니 든든합니다. 출신학교가 자랑스러워할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복 감독 드림.



우광성 감독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실감을 하지 못했었지만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클레어몬트는 저의 정체성 형성은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도 큰 이정표가 되어 준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지만 다양한 인종, 문화를 접하면서 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습니다.

강원도 시골의 촌놈으로 자라났지만 그 자체가 당당한 세계의 일부이며 따라서 세계속의 한국인의 역할이나 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모여져서 저의 목회가 선교지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동부연회는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보다 10배는 크지만 교회의 형편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바닷가 어촌교회들도 많고, 대관령 산맥으로 연결된 정선, 태백과 같은 산촌교회들, 특히 사북, 영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광산촌 교회 그리고 농촌교회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부연회 전체에 691개 교회 그리고 약 8만 4천여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의 1/3 정도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민들 자체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역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적 상황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의 방향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하던 세계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되, 감독으로서는 세계선교의 본부교회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국교회를 격려하고 살려내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과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하고 있을 후배님들의 모습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한대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꿈들에 미리 박수를 보냅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광성 감독 드림.

클레어몬트에서의 첫 발걸음



이혜인 전도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 M.Div 과정에 입학한 이혜인입니다. 6년 전 클레어몬트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학문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고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대가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한국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로서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점차 확고해졌습니다.

유학 준비 과정은 여러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어 시험과 자기소개서 작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유학에 대한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입학 과정에서 한인 학생을 위해 지원된 장학금은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Westwood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수업과 Intensive week 덕분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강의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강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학적 토론은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신념과 비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저에게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과 여러 네트워킹 이벤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학문적 경험이 저에게 더욱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신학적 연구자로서 한층 더 성장할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과 경험이 제 신앙과 사역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 전도사 드림.

DPC 1기, 김민정 목사의 믿음의 여정과 학문의 깊이를 향한 발걸음



김민정 목사

살림!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DPC) 1기 과정 중에 있는 김민정입니다. 클레어몬트 한인뉴스레터를 통해 인사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치유상담대학원을 입학하기 전부터 클레어몬트 상담 박사 과정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꿈꾸었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마음 한 켠에 남겨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졸업 학차(4학차)에 이 과정의 인가 소식을 전해 듣자 더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잠시 뿐 늘 경제적인 여건과 졸업 후의 진로등 현실적인 질문에 다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성경필사를 하며 이 과정에 대해 묵상하다가 ‘한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엇이죠?’라는 질문을 드리고 다시 묵상을 하다 모세의 한 발자국, 여호수아 시절 제사장의 한 발자국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내게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을 학차 모임에서 나누고 의견을 듣고 결단하며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은 상담전문박사 과정으로 한국과 미국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배운 과목을 다시 들으며 심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토의를 통해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학부에 이어 석사 과정을 2번이나 경험하면서도 늘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학문적인 욕구가 크다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DPC 박사 과정을 천천히 나아가면서 최종 프로젝트인 논문에서 그 깊이를 채우고 싶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내가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입니다. 시작한 이상 물러나지 않는 장점 살려 책임감을 가지고 학문의 깊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wo)man” 네비게이토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말입니다. 매해마다 제 다이어리에 늘 기록하는 말입니다. 제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흔들흔들하겠지만 결국엔 또 그것을 해낼 제 모습을 그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 길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 기도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 DPC과정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목사 드림.

2024 한인총회, ‘다시 은혜 앞에’ 주제로 대면 정기회의 개최



(2024 한인총회 전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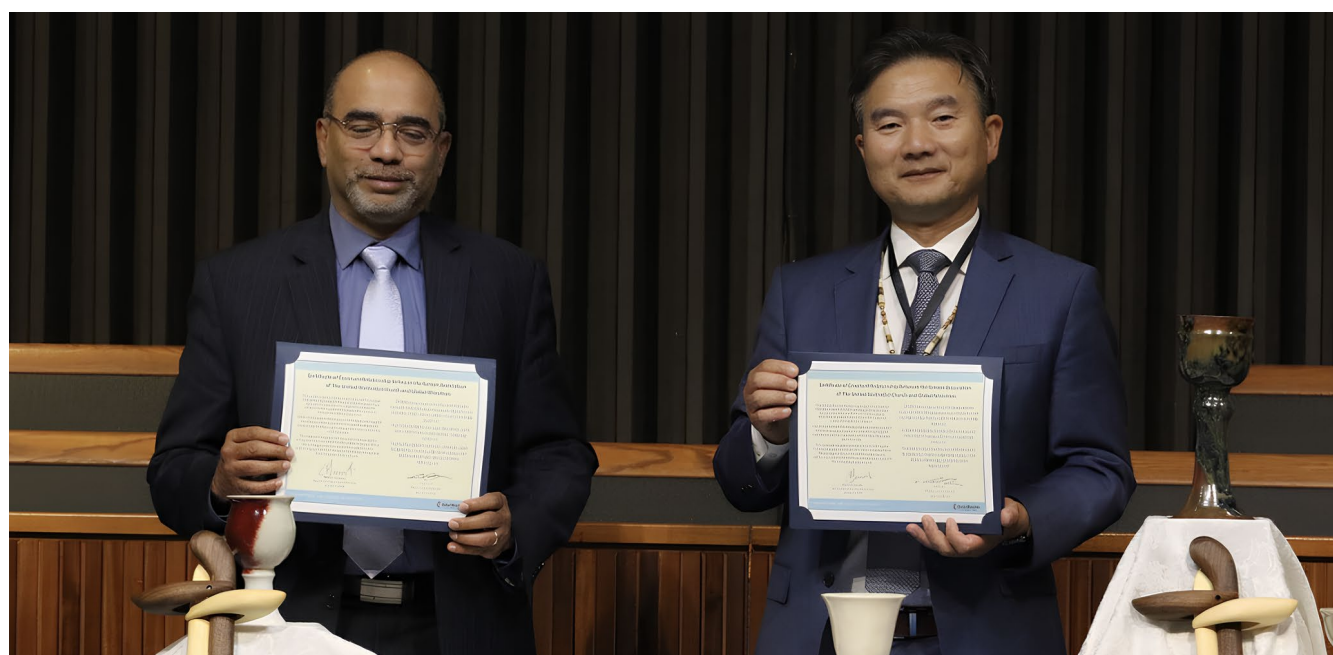
2024 한인 총회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정기회의로 개최되며 큰 관심 속에 시작했다. 이번 총회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LA 연합감리교회와 힐튼 LAX 호텔에서 “다시 은혜 앞에”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11명의 목회자와 60명의 평신도를 포함해 약 400명이 참석했다.

개회 예배는 이창민 총회장의 선언과 함께 “Grace upon calling”이라는 소명에 관한 주제로 시작되었다. 북텍사스 연회에서 올해 준 목사로 파송된 조은별 목사,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에서 정회원 목사로 안수받은 원홍연 목사, 그리고 선교사로 섬기다가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의 개체교회로 파송된 이순영 목사가 저녁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다.

정희수 감독(동오하이오 및 서오하이오 연회)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힘과 용기를 얻고, 미국을 성서적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인총회가 이 지구상에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과 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경험을 합시다.” 라며, LA 연합감리교회의 환대에 감사를 전했다.

둘째 날에는 “Grace upon ministry”라는 주제로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단 탈퇴’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집중하였다. 저녁 예배에서는 뉴저지 한마음 연합감리교회의 윤석정 장로, 리뉴(Re-New) 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한 차세대 목회자 샘 팍 목사, 그리고 북일리노이 연회 북프레이리 지방의 정화영 감리사가 설교를 전했다.

이날 한인총회는 2023년 10월에 별세한 목회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 목회자는 한상은 목사, 라영복 목사, 주완식 목사, 김옥남 목사, 정대선 목사, 한상휴 목사, 정지한 목사, 박광배 목사, 차현희 목사 등이었다. 이날 평화기도회도 열려, 전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2024 한인총회에서 체결된 선교 협약식 - 롤랜드 퍼난데스 총무와 이창민 목사가 함께 서명)

셋째 날은 “Grace upon mission”으로 선교를 주제로 한 시간을 가졌다. 세계선교부의 다양한 사역이 소개되었고, 한인총회와 세계선교부(GBGM) 간의 ‘선교 협약(Mission Covenant)’이 체결되었다. 참석자들은 2023년 5월 2일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간 중 한인총회 회장단이 약속한 “140명의 해외선교사에게 매달 최소 100달러를 3년간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 선교사 지원은 2024년 5월에 새로 파송된 16명을 포함해 3년간 총 50만 달러를 목표로 한다. 협약서는 이창민 목사와 세계선교부의 롤랜드 퍼난데스 총무가 서명했다.

이창민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에 빚진 자임을 강조하며, 로버트 매클레이, 헨리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연합감리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덕분에 한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10일에는 한인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종교인 비자 영주권 신청 문제였다. 종교인 비자가 난민 청소년 비자와 겹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총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며, 영주권을 받지 못해 서류 미비자가 될 위험에 처한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폐회 예배에서 한인총회 부총회장 권혁인 목사(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는 설교를 통해 “실패해도 괜찮고, 너무 안간힘 쓰지 않아도 괜찮고, 꼭 그 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위를 바라보며 끈질기게 버티는 힘을 강조했다.

총회는 대뉴저지 연회 감리사인 도상원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형제자매들이 오랜만에 만나 손을 잡고 반갑게 대화를 나누며, 며칠간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좀 힘들었던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어울리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 울타리 안에서 어우러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인 총회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성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녹록지 않은 목회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인총회가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한인 교회와 한인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은혜로 더 힘써 나아가게 도왔기를 소망한다.



다문화적 사역의 선구자

한인 이민사를 빛낸 사람

이동진 목사 (1915-2010)

이동진 목사는 1915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나 1919년 5살 때 3.1 만세운동 전날 사랑방에서 어른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인 청년 결사대 단장으로 3.1 운동을 이끌었던 아버지 이용린 목사는 이후 한 달간 쫓기다가 일경에게 잡혀 모진 옥고를 치렀다. 이동진 목사는 1929년부터 평양 숭실학원에서 수학하다가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되자 중국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중국까지 쫓아 온 일본 경찰에 체포돼 입학도 못 한 채 평양으로 돌아갔다. 공부할 방도를 찾다가 1936년 동경의 일본대학에 입학해 2년 후 졸업했는데, 신사참배 거부 사건으로, 미국으로 추방됐던 숭실학원의 조지 맥컨 박사의 주선으로 1938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 잠시 정박한 것이 하와이와의 첫 인연이었다. 그는 하와이가 삶의 터전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오와주 파슨스(Parsons)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해 1943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으나 2차대전 때라 미국 국방성 정보국에 차출돼 대일 선전방송 일을 했다. “영어와 일어를 할 줄 아니까, 영문으로 된 선전문을 일어로 번역해 라디오로 직접 방송했다” 고 한다. 미국 국방성 정보국 일을 그만두고 1945년부터 8년간 사우스다코타와 워싱턴 및 오레곤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폈다. 그러다가 1세를 위한 우리말 목회와 2세를 위한 영어목회가 모두 가능한 목회자를 애타게 찾던 감리교단의 요청으로 1952년 제일한인감리교회(현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하와이와 다시 인연이 시작됐다. 그와 하와이 한인역사를 연결해 보면 이민 50주년 행사부터, 75, 90주년 행사에 참여했고,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참석한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리고 그는 기념행사마다 하와이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 성장했는지를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목사는 1982년 타민족 교회에서 은퇴 후 하와이에서의 첫 부임지였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각종 한인 단체의 자문, 고문으로 ‘지혜로운 어른’ 역할을 맡았다 (KA우먼스클럽, 한인미술협회, 국제밝은사회운동). 이민 90주년 행사 때는 이민사 사진집 ‘그들의 발자취’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책에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실었다. (여기까지 2003년 4월 24일 복음인(<http://www.ingn.net>)에 실린 기사를 수정하여 실었다.)

미국에서 이동진 목사는 다인종, 다민족적 목회를 하였다. 1952년에 하와이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담임목사로서 한인 1, 2, 3세를 위한 이중언어 목회를 하였다. 그 후 백인교회, 일본인 교회, 필리핀교회, 사모아교회 등을 섬기고 1982년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에서 은퇴하였다.

이동진 목사는 2세 교육에도 앞장서 한국 숭실중고등학교와 숭실대학에, 루이빌장로교신학 대학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및 웨슬리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또한 2004년부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하여 목회자 양성에 일조했는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장학위원회는 이 장학금을 CST의 영구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동진 목사는 이 같은 공로로 한국과 미국의 모교로부터 우수 동문상과 2005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 을 수여 받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면서도 비폭력과 존엄성을 유지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동진 목사는 신앙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목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23세에 아직 분단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을 떠난 그는 94세로 소천하기 전까지 하와이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와이의 “지주” 이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목회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동진 목사의 삶은 한국의 근대사와 미국 이민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의 이야기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한민족의 불굴의



이경식 박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영적 돌봄, 상담 분야 Edna & Lowell Craig 교수이자 국제 협력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실천신학자이자 심리학자로서 목회 경험과 임상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다문화 환경에서 목회와 상담을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심리학, 종교, 영성이 만나는 지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천 신학에서 경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임상 및 목회적 돌봄을 다룬다. 이경식 박사는 영성 통합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공식 트레이너이며, 클라인벨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소(Clinebell Institute) 소장을 맡고 있다. 예일신학대학원과 웨슬리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미국 목회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24년 3월 1일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국제 협력처의 부총장 및 전문상담 박사 학위 프로그램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일 기준): **\$209,820**

- KEF 잔액(1990.03. - 2024.11.):	\$2,341,654
- KLS 잔액(2018.10. - 2024.11.):	\$641,070
- General Fund 합계(2024.03. - 2024.11.):	\$10,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에서는 T. Samuel Lee 목사 기념 & K. Samuel Lee 박사 장학금을 소개합니다. T. Samuel Lee 목사님은 하와이 한인 이민 사회와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목회자였으며, 그의 신앙과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K. Samuel Lee (이경식) 박사님은 T. Samuel Lee 목사님의 조카손자로서, 실천신학자이며 심리학자입니다. CST의 교수로 목회상담, 영성통합심리치료 및 실천신학 과목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현재 CST의 국제협력 부총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두 분의 헌신을 기리며,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